

“국민·민주주의 배신한 결과... 심판 받을 것”

헌법개정안 투표 불성립... 지역사회 반응

5월단체 등 광주시민단체, 정치권 비판 쏟아내 “민의 대변하지 못한 국민의힘 역사의 죄인 될 것”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되면서 5월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 표결을 진행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했다.

이에 5·18단체와 광주 시민단체 등은 정치권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5·18정신헌법전문수룩국민추진위원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국민이 오랜 시간 요구해 온 시대적 과제였다”며 “추진위는 그 실현을 위해 개헌을 촉구해 왔고, 6월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국회의 결단을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과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며 “그 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역사적 책무이다”고 피력했다.

추진위는 국회 개헌안 의결 불성립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치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끝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책임 회피이며, 낡은 헌정 체계를 주권자 국민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재정비할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선택이다”며 “특히 12·3 사태 이후 무너진 헌정질서 회복과 단절 의지를 보여줄 기회였음에도 이를 행동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에서, 그 정치적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선택은 스스로의 개혁 의지와 책임성을 국민 앞에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수 의석을 가진 정치세력 역시 개헌을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면 보



광주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들이 최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 개헌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다 적극적인 정치력과 협상으로 이 국면을 돌파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투표 불성립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결과로, 국민의힘은 역사 앞에 당당히 설 수 없게 됐다”며 “민의를 대변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은 “국민의힘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개헌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며 “5·18민주화운동은 쿠데타 세력

의 총칼 앞에 당당히 맞선 역사”고 설명했다.

또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직무유기다”며 “국민과 역사에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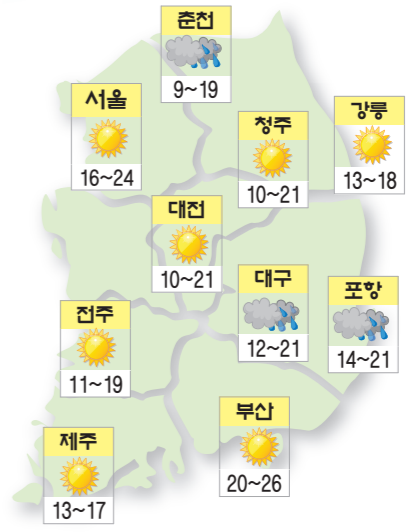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도 “이번 개헌안은 내란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지만 끝내 좌절됐다”며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12·3 내란과 같은 시도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투표 불참은 시대의 명령을 거스르고 있음은 물론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새기자는 최소한의 개헌조차 국민의힘은 외면했다”며 “계엄 통제 강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개헌안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를 외면한 대가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오늘의 날씨

예보	05:35	달출	00:26
해질	19:24	달림	10:14



광주	11~20
목포	12~19
여수	12~21
순천	11~21
구례	10~19
광주	10~20
신도	10~21
흑산도	12~16
고흥	11~21
진도	12~18

체포되자 오리발 내민 절도범

○...웃가게에서 의류를 훔쳤다가 체포,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위조·납인한 80대 여성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져.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재판부는 절도, 사서 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16일 광주 광산구 웃가게 2곳에서 2만원 상당의 티셔츠와 바지 등 2점을 절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

이후 사건 당일 곧바로 불집단 A씨는 광산경찰서 형사과통합담당 직실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발각되고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고지확인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 공문서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고.

또 A씨는 타인의 서명을 날인한 해당 문서를 경찰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너 없이 어찌 살라고”... 여고생 발인 눈물 속 엄수

유가족, 운구차 따르며 오열 친구·교사들 마지막 길 배웅

“이렇게 보낼 수 없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한밤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A양(17)이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장례식장 복도와 출입구 주변은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유족들은 차마 떠나보내지 못한 채 관을 붙잡고 오열했고, 친구와 교사들도 눈물로 마지막 등굣길을 배웅했다.

7일 오전 8시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장례식장.

검은 옷차림의 유족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를 지켰다. A양의 부모는 수척한 얼굴로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연신 눈물을 흘렸고, 뒤늦게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은 유족의 손을 잡으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발인 시간이 다가오자 장례식장 밖에



지난 5일 귀장길 흥기피습으로 사망한 고등학교생 A양(17)의 발인식이 엄수된 7일 광주 광산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는 운구차가 도착했다.

장례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유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순간, 빈소 안은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A양의 동생이 영정사진을 들고 빈소 밖으로 나서자 유족들의 울음은 더욱 커

졌다. 어머니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친척들의 부축을 받아야 했다.

하얀 천으로 덮인 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곳곳에서 오열이 터져 나왔다. 유족들은 국화꽃을 손에 쥔 채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관을 연신 쓰디듬으며 떠나

는 길을 붙잡았다.

관에 운구차로 옮겨지는 순간 일부 유족들은 얼굴을 감싼 채 주저앉아 흐느꼈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슬픔을 견뎠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절규도 이어졌다.

장례식장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비통함으로 가득 찼다.

운구차는 이후 A양이 다니던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로 향했다.

유족과 지인들은 영정사진을 들고 학교 교정을 한 바퀴 돌며 고인의 마지막 등굣길을 함께했다.

“잊지 말아줘”, “우리 딸 어디 가, 학교 가야지”라는 울부짖음이 교정 곳곳에 울려 퍼졌고, 이를 지켜보던 학생들도 눈물을 삼키지 못했다.

교사들 역시 끝내 꽃피우지 못한 제자를 떠나보내며 고개를 떨궜다. 운구차가 학교를 떠난 뒤에도 학생과 교사들은 한 동안 자리를 뜨지 못한 채 침통한 표정으로 교문 앞을 지켰다.

한 조문객은 “사고 소식을 듣고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며 “동네 전채가 깊은 슬픔에 빠져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오전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앞 인도에서 장모씨(24)가 휘두른 흉기에 귀가 중이던 A양이 숨졌다.

당시 현장 인근에 있던 또 다른 고등학생 B군도 흉기에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침단2동 주민들 추모 공간 마련

플래카드·노란 리본 설치...시민 발길 이어져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게 살해된 여고생을 추모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

7일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침단2동 주민들과 지역 사회단체는 월계동 사건 현장 인근에 시민 추모 공간을 조성했다.

주민들은 숨진 A양(17)을 애도하고 시민들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운영에 나섰다.

현장에는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노란 현수막이 설치됐고, 시민들이 추모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펜과 노란 리본, 노란띠 등이 마련됐다.

이후 추모 공간에는 국화꽃 30여 다발과 함께 초코우유, 초콜릿, 빵, 과자, 인형 등이 하나둘 놓였다.

추모객들이 남긴 손편지와 메모, 리본도 현장 곳곳을 채웠다.

가로수에 매단 흰 줄에는 노란 리본이 이어졌고, 리본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해야 돼”,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함께” 등 애도의 메시지가 적혔다.

추모에 나선 시민들은 국화를 내려놓고 묵념하거나 기도했다.

아이 손을 잡고 현장을 찾은 부모들도 있었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시민이 발걸음을 멈춘 채 한동안 추모 공간을 바라보는 모습도 이어졌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0대 문지마 살해범 구속...법원 “도주 우려”

증거인멸 정황 포착...경찰 신상공개 심의 착수

어린이날 새벽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살해하고 또 다른 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정교형 영장전담 재판장은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장모씨(2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장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장씨는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101호 법정으로 향하면서 ‘왜 살해

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는 거’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장씨의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은 “왜 얼굴을 가리냐”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고등학교생 A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구조 요청을 듣고 접근한 또 다른 학생 B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장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2점의 흉기는 모두 주방에서

쓰는 칼로, 범행 도구로는 1점만 쓰였고 나머지 1점은 포장이 뜯기지 않은 상태였다. 장씨가 범행도구를 침단지구 내 한 공원 주차장의 배수로에 버리고, 범행 후 무인세탁소에 들러 헹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범행 유형이 전형적인 이상동기 범죄(문지마 범죄)일 뿐, ‘무계획 범죄’는 아닌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경찰은 사건 전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해당 법 시행 이후 광주 지역 첫 사례가 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음주운전 의심자 추적’ 생방송 유튜브법정 구속

음주운전 의심자를 경찰에 신고한 뒤 자신이 추적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생방송한 유튜브가 법정 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A씨(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동 기소된 유튜브 B구독자 등 피고인 7명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100만~200만원을 판결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고발 유튜브 생중계 방송 도중 여러 대의 차량을 몰아 위협적인 주행으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뒤를 쫓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튜브로 음주운전 추적 방송을 하던 A씨는 신고 대기 중이던 B씨에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물었고, 유튜브를 알아본 B씨는 달아나다가 길가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사망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